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과 포괄적 성교육

화성시청소년문화센터는 유네스코에서 제안한 '포괄적 성교육(CSE)'에 따라 교육하고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온라인에서의 삶'과 연관된 포괄적 성교육의 핵심 개념, 주제, 학습목표를 소개합니다.



핵심 개념 ④ : 폭력과 안전

[주제 : 4.3 정보통신기술의 안전한 사용]

- 학습목표(9-12세) ※학습목표는 4개의 연령집단(5-8세, 9-12세, 12-15세, 15-18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제시됨
- 1.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사용에는 특별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
- 2.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와 매체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유해한 젠더 고정 관념을 갖게 할 수 있다.



핵심 개념 ⑤ : 건강과 복지를 위한 기술

[주제 : 5.4 미디어 정보해독력과 섹슈얼리티]

- 학습목표(9-12세) ※학습목표는 4개의 연령집단(5-8세, 9-12세, 12-15세, 15-18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제시됨
- 1. 미디어는 섹슈얼리티와 젠더에 대한 가치, 태도, 규범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본 지침서에서 사용한 포괄적 성교육 핵심주제별 심벌은 아하서울시립청소년문화센터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었습니다.

※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화성시청소년문화센터(<https://hssay.hswf.or.kr>)와

아하서울시립청소년문화센터(<http://www.ahacenter.kr>) 홈페이지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과 화성시청소년문화센터 체험관 성교육



화성시청소년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연관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미디어세대

- 추천대상(연령) : 8~10세 연령의 아동·청소년 (초등학교 저학년)
- 교육내용 : "미디어 건강하게 사용하기"

허락이와 거절이

- 추천대상(연령) : 11~13세 연령의 아동·청소년 (초등학교 고학년)
- 교육내용 : "비동의 촬영물 너의 정체가 궁금해"

'디지털 원주민' 관련 도서, 웹 사이트 추천

본 지침서를 제작할 때 참고한 도서와 자료(웹 사이트)를 안내 및 추천해드립니다.



안전하게 로그아웃

김수아,
창비, 2021



디지털 원주민 키우기

데버라 하이트너,
창비, 2020



FORME
for media education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 웹 사이트
<https://www.forme.or.kr>

디지털성범죄 지원기관 안내

디지털성범죄 피해 상담/신고 지원 기관을 안내드립니다.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스톱지원센터 1544-9112 / 카카오채널 031cut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 전화상담) / 카카오채널 women1366

청소년전화 1388(24시간 전화상담) / 카카오채널 청소년상담1388

화성시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031-378-5691~5692



화성의 행복한 서평들을 꿈꾸다

화성시청소년문화센터

경기도 화성시 여울로2길 33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나래동 1층

Tel. 031-8015-3900 E-mail. hssay@hswf.or.kr

Homepage. <https://hssay.hswf.or.kr>



2021 화성행성 성교육지침서_02



디지털 원주민 Digital Native 이해하기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 이해하기'가 필요한 이유

2021년 화성시청소년문화센터의 전화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바로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양육자와 지도자의 고민이었습니다.

이미 '온라인에서의 삶'은 아동·청소년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에서 '온라인'을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 세대와 새로 배워야 하는 세대 사이의 간극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본 지침서를 통해 세대 간 간극을 조금씩 줄이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온라인에서의 삶'을 누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은 2000년대 초 미국의 교육학자 마크 프렌스키(Prensky, 2001a)에 의해 제안된 용어입니다. 어릴 적부터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노출된 아동·청소년-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과 그렇지 않은 성인-디지털 이주민(Digital Immigrant)-이 서로 다른 언어·사고방식·생활방식 등을 가진다는 주장입니다.

이후 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날 아동·청소년의 한 단면을 묘사하는 언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¹⁾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이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로 인간 관계, 평판, 시간 관리의 어려움을 들 수 있습니다.²⁾

1) 권예지, 나은영, 박소라, 김은미, 이지영 and 고예나. (2015). 한국의 디지털 원주민과 디지털 이주민: 온라인 콘텐츠 이용, SNS 네트워크, 사회적 관계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9(2), 5-40.

2) 데버라 하이트너, 「디지털 원주민 키우기」, 이민희 옮김, 창비(2020).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이 살아가는 세상

관계의 변화

관계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기본 욕구입니다. ‘온라인 공간’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이지만, ‘관계 맺기’라는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온라인은 친밀감과 휘발성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쉽게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친밀감이 높아지는 한편, 언제든지 자신의 흔적을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휘발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얼굴을 보면서 하지 않을 대화나 행동을 온라인에서는 더 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다양한 목적의 랜덤채팅방을 들 수 있습니다.

콘텐츠의 소비자이자 생산자로 살아가기

인터넷·스마트폰의 발달과 보급은 아동·청소년이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고 소비하게 합니다. 직접 콘텐츠를 만드는 생산자로의 전환도 자연스럽게 이뤄집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는 콘텐츠 소비 도구이자 창작 도구로 사용됩니다. 더 이상 간단한 사진과 영상을 찍기 위해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아동·청소년이 콘텐츠 생산자(크리에이터)의 삶을 꿈꿉니다. 콘텐츠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계가 모호해질수록 높아지는 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연결, 공개적인 세상에서의 삶

학교에서 헤어지고 집에 오면, 전화 이외에는 별도의 연락 수단이 없던 세상과 스마트폰 메신저로 실시간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세상은 어떻게 다를까요? 인화된 사진을 앨범에 모아두는 세상에서 SNS 등 온라인 공간에 언제든지 사진을 남기고 다른 이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세상으로의 변화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일상생활의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줍니다.

아동·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 이런 변화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공간은 안전할까요?

사이버 폭력

‘관계 맺기’가 항상 즐겁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학교 친구와 메신저로 대화하기처럼 많은 경우 온라인 관계는 현실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온라인의 ‘끊임없는 연결’과 같은 특성 때문에 갈등과 과롭힘이 더욱 심해지기도 합니다.

아동·청소년은 때로 나의 관심과 취향에 맞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임 등을 통해 낯선 이들과 교류하며 큰 즐거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만 **현실 만남 등의 상황에서 즐겁지 않고, 안전을 위협받는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디지털 발자국,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

온라인에서 우리의 행동은 기록되고,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검색어를 기반으로 한 광고 추천 등). 스마트폰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공유할 때 위치 정보 등 원치 않는 개인정보 노출이 발생합니다.

많은 경우 아동·청소년은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이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온라인 스토킹’이나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개인정보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정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

우리는 궁금한 것을 알기 위해 무엇을 할까요?

온라인 ‘검색’은 우리 일상에서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날씨와 같은 일상생활 정보부터 전문 지식까지, ‘유튜브에는 없는 것이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한편으로 애곡된 ‘성(性)관념, 폭력적인 이미지나 영상, 가짜뉴스 등 **유해한 정보에 쉽게 접근 할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선정적인 광고 노출 등의 경우도 많습니다.

알고리즘의 영향력 안에서 다른 생각과 의견을 접한 기회가 점점 줄어듭니다.

혐오 표현으로 가득한 댓글을 보면 내 안의 편견과 선입견이 강화됩니다.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소통’과 ‘통제’의 경계 사이에서

양육자들은 많은 경우 아동·청소년의 ‘온라인과 디지털기기 사용’을 통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통제를 우회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며, 또래 사이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자연스러운 호기심과 욕구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물론 ‘차단’보다 훨씬 신경 쓸 것이 많고, 더 큰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잘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먼저 아동·청소년에게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적응은 아동·청소년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양육자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는 온라인에서의 삶에도 당연히 필요하며, 매우 중요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기르기

최근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는 ‘미디어’와 ‘리터러시’의 합성어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고 미디어 작동 원리를 이해하며 미디어를 비판하는 역량을 넘어

미디어를 적절하게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미디어 정보 활용 능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공간의 지혜로운 사용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은 양육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친인척 등 가족 구성원, 다른 양육자를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노력이 필요하고, 이미 다양한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든 양육자를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문화센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의 양육자로서 스스로 평가해보기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련된 아래의 질문을 통해, 양육자로서 자신의 생각을 확인해보고 아동·청소년과 함께 소통해보시기 바랍니다.

- ① 내가 생각하는 미디어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 ② 아이에게 친숙한 미디어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아이에게 직접 묻고 내가 생각한 것과 차이를 이야기해보세요.
- ③ 디지털 미디어 이용은 언제부터 얼마나 허용해야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④ 미디어 활용에 대한 연령별 제한 기준을 알고 있나요?
제한 기준이 타당한지 아이와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 ⑤ 아이들이 학교 등에서 배우는 미디어 이용법의 내용을 알고 있나요?
기억하고 있거나, 실제로 적용한 적이 있는지 이야기해보세요.
- ⑥ 나는 미디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나요?
- ⑦ 아이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미디어와 온라인 사용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나요? 아이의 사진을 온라인에 공유할 경우 허락을 받고 있나요?
- ⑧ 아이가 미디어 생산자(크리에이터)에 관심이 있나요? 미디어 생산자로서 알고 지켜야 하는 규칙은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보세요.
- ⑨ 숙제 등 온라인 자료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나요?
- ⑩ 아이들의 미래에 미디어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 본 질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학부모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실천·지도 매뉴얼’(2018)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